

# 지혜로운 리더의 필요조건 “뻘야(Panna)” :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

“뻘야(Panna)는 인도어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이다.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감정상태에서 벗어나 좋고 싫음의 분별심을 버리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지혜롭게 해주는 원리이다.”

얼마 전 한국이 OECD 국가 중 행복지수는 최하위이며 자살율은 가장 높다는 우울한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몇 해를 접하다 보니 이제 더 이상 충격적이지도 않다. 한 때 남부러울게 없을 것 같았던 TV 스타들이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며 스스로 생명을 거두고, 일명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도 자리에서 물러나는 순간 허탈함을 주체하지 못하고 상실감에 빠지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목격한다. 이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부재로, ‘인기’나 ‘직위’ 그 자체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정체성 오류(동일시 현상)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자기 동일시 문제의 중심에는 자신에 대한 정의와 현상의 본질을 바라보는 힘의 부재가 있다. 상대세계에 존재하는 온갖 것들로 ‘나’를 포장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본질을 볼 수 있는 힘을 잃는 것이다. 우리는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명품백을 둘러메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로 자신을 과시하며, 축적한 부의 규모로 상대적 성공 기준을 만들어 내는데 너무도 익숙하다. 하지만 이런 상대적 관점은 진정한 행복을 갈구하는 우리의 본성을 더욱 혼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뿐 어떤 해결책도 주지 못한다.

절대적 관점에서의 전환은 이러한 삶의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정의(definition)가 우선 되어야 한다. 일과 삶의 연속성을 간파하고 그 속에서 소명(calling)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사회인으로서 자신을 회복할 수 있다. 나는 ‘반응없이 바라볼 수 있는 힘’인 ‘뻘야(Panna)’를 통해 절대적 관점의 삶의 방식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뻘야(Panna)는 인도어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이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쉽게 자신의 감정을 이입시키며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내가 곧 대상이 되고 대상이 곧 내가 되어 뒤섞여 버린다. 이것은 사실의 혼입(confounding)이며 동시에 또 다른 문제를 조건 지어지게 한다.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감정상태에서 벗어나 좋고 싫음의 분별심을 버리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지혜롭게 해주는 원리이다.

예측불허,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리더십을 고취하는 것은 곧 수행자의 길과 흡사한 것 같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 ‘뻘야’는 통찰을 필요로 하는 오늘날의 리더들에게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역량이다. 분별심을 버리고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는 리더는 어떠한 난관도 헤쳐 나갈 수 있는 강한 내면과 지혜로움을 얻게 될 것이다.

We Serve the Global Success!!

C.E.O James Roh(노상충)

\* 인도어 ‘뻘야(Panna)’의 우리말식 표현은 ‘뻘야’이다. 예)뻘야심경



James Roh

